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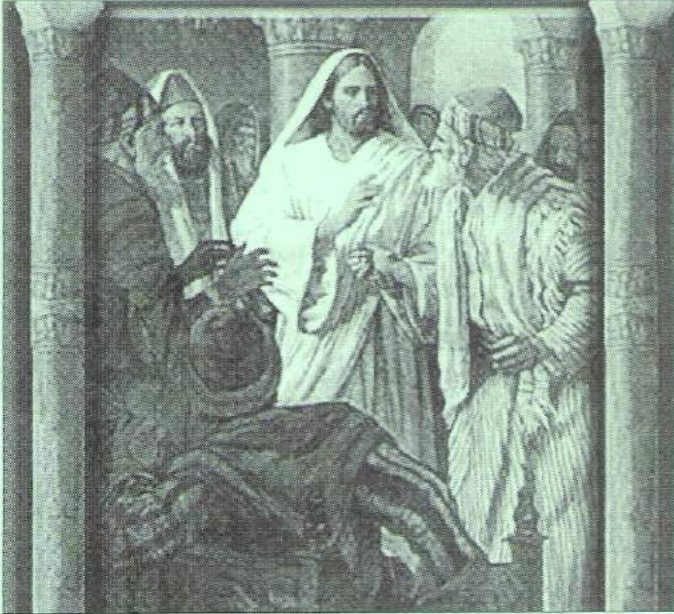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32주일

제36권 49호(다해) 2016년 11월 6일

[묵상]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논쟁>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주소서."

우리는 모두 사랑의 산물이다.

또 사랑으로 자란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다가 죽는다.

우리는 사랑과 멀어질 수 없고 이것 없이 살 수 없다.

다 부모님 덕택이고, 조상들의 유물이다.

이런 조상들에 대한 우리들의 효성은 어떤가?

마치 그런 분들이 없었던 것처럼,

혹은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양,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 마디로 완전히 잊고 산다.

미안할 정도가 아니라 죄송 천만이다.

이런 우리에게 <위령성월>을 정하여,

가신 분들의 은덕을 기억하게 하는 교회의 처사는,

참 그지없이 고맙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프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오후 1:00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CLOSED (베테랑스데이 휴일)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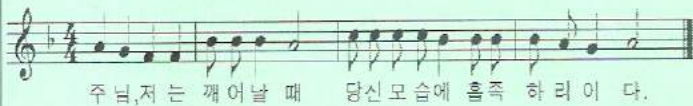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이순자 레지나, 권순봉 요안나, 서성용 베드로 & 이명자 로사 & 변혜경 올리안나, 이마리아 & 윤공비오 & 윤지나 올리아 & 김상순 레지나, 황학주와 조상들과 황테레사 & 황다니엘 (생) 이복임 엘리사벳, 조병준 플로렌시오,
주일 학생	(연) 정완현 안드레아, 이인숙 엘리사벳 (생) 최준민 마커스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양한석 루치아노, 최창출 스테파노, 김용희 안드레아, 권순봉 요안나, 낙태아들,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박정이, 김남수, 허복동, 이동우 & 장두선 & 김충수 토마스, 노정순 베로니카, 임규에 분다 & 이필연 마르첼로 & 정을진, 전정규 루시아, 김요셉 & 윤마리아 & 김도밍고 & 김요한 & 김헬레나 & 김바로로 (생) 손석 스테파노 & 손두화 스테파니아, 강유정, 박정미 클라라, 김제정 & 박호선 & 김민지, 황윤재 베드로가정, 조영우 스테파노, 도동1반 석구, 한영 루시아, 석순영 아네스, 이장환 마르피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마카베오기 하권(2 Maccabees) 7,1-2,9-14

화답송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
이다.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 계명의 길 곳곳이 걷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제 2독서 데살로니카 2서(2Thessalonians) 2,16-3,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죽은 이들의 말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복음 루카(Luke)20,27-38<또는 20,27,34-38>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1. 분단 시대의 교회

1. 분단 시대 출현과 교회(1945~1953년)

1-1. 해방 공간의 교회

한 반도에 진주한 미군과 함께 스펠만(Spellman, 1889~1967년) 대주교가 임경하여 전쟁과 탄압에 시달리는 한국 천주교회를 위로하고(1945.9.8.), 곧이어 연합군 환영 미사와 환영식이 명동 성당에서 거행되었다(1945.9.28.). 해방 다음 해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영회'가 명동 성당에서 거행되었다. 상해 임시 정부 요인들이 참석한 이 환영식에서 김구(金九)는 중국의 천주교회가 한국의 독립을 후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당시 남한의 미 군정에서는 임시 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고 있었다. 이때 천주교회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영회'를 개최한 것은 독립 유공자인 임시 정부와 그 주요 인물들에 대한 지지를 뜻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 환영회를 개최함으로써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인정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였다.

해방 공간의 남한 교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인 성직자들의 선교 활동이 활기를 띠었고, 조선에서 선교하던 일부 일본인 사제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대구교구의 경우 1946년 초에 일본인 교구장이 서거하자 제4대 교구장으로 주재용(朱在用, 1894~1975년) 신부가 임명되었다. 일제 말엽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복역하고 있던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선교사 3인이 석방되었고, 강원도 홍천과 충청도 공주 등지에 언급된 선교사들이 석방되어 자신의 선교지로 돌아갔다. 추방되었던 메리놀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도 다시 입국하여 활동하면서 해방 공간 한국 교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로마 교황청은 해방 직후의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다. 교황청은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인 1947년부터 서울에 교황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남한이 독립할 때 이를 최초로 승인한 국가가 되었다.

1-2. 분단 정권하의 교회

해방 직후 남한 사회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하였는데, 천주교 지도층은 반공주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들이 견지한 반공주의는 남한의 건국 과정에도 투영되어, 남한에 성립된 분단 정권의 성격을 반공주의로 정립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서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공포되었다.

<계속>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346	346	346
봉헌	255	255	261
성체	282	282	292, 306
파견	249	249	349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마카베오기 하 7,9)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05년 4월2일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과 2009년 2월16일 김수환 추기경이 하느님께로 돌아가면서 남긴 말씀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전 생애를 마무리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삶의 흔적과 지향이 고스란히 담긴 이 말씀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위령 성월을 지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휴가나 성지순례로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왠지 모를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 여행 일정이 아주 즐겁고 행복했어도 “역시 내 집이 최고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집이라는 곳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한평생 살다가 죽어 하늘로 돌아가기까지의 인생 여정이 한 사람의 삶의 여행이라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집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 삶은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가장 평안한 집인 하느님 나라에서 “역시 내 집이 최고야!”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일곱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는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늘나라가 ‘최고의 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 즉 하느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희망과 믿음의 고백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 해 봅니다.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깊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영원한 삶이 없는 듯, 현세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고 한 천상병 시인의 노래가 또한 우리의 노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살게 해주신, 돌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 생애가 감사의 연속은 아니더라도, 감사할 순간순간들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영원한 위로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영원한 집’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여행을 아름답게 가꾸어야겠습니다.

◆조성품 아우구스티노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한경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11월
위령성월**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위령의 날 (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해 놓았다. 이달에 신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친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은 날마다 한번씩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 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 고백과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해야 한다.

◆ **대림특강**

- 일시 : 대림 1, 2주 11시 미사 후
- 장소 : 성전
- 주제 : “어떻게 들을 것인가?”
- 강사 : 양성옥 바오로 신부(성 김대건 안드레아성당)

◆ **성모회 음식판매**

본당 성모회에서 자체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음식을 판매 합니다.

- 일시: 11월 6일(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 11시 미사 후
- 판매음식 : 족발, 순대

◆ **남가주 한인가톨릭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1월12일(토)
연도 오후 1시15분, 미사 오후 2시
- 장소 : Holy Cross Cemetery
5835W SLAUSON AV, CULVER CITY, CA 90230

◆ **남가주 추수감사절 성가경연대회**

-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3:30, 각 구역의 반장 및 구역장께서는 이번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곡명: I Will Follow Him
- 문의: 김용 스테파노 ☎ (310)926-2248

◆ **청소년 분과 봉사자 모집 공고**

백삼위 한인성당의 주일학교, 한국학교의 발전은 교우 분들의 작은 기도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즐거운 성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 &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103skccks@gmail.com

◆ **주일학교 밴드부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 밴드부에서 학생 미사 시간에 활동할 밴드 단원을 모집합니다.

- 자격조건 : 음악에 관심이 있는 주일학교 9학년 이상 학생
- 연락처 : 밴드부 또는 주일학교장

◆ **요셉회 11월모임**

- 일시 : 11월 20일 주일, 11시미사후
- 장소 : 강당
- 추수감사절 특별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부동반 참석 바랍니다.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 6일: * 성모회 음식판매: 족발, 순대, 킷라면
* 주일학교: 짜장밥 (4학년)
- 11월13일: * 하버/카슨: 배추된장국(\$3)
* 주일학교: 미역국밥 (3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대우 김원모 김일선 박미경 서영주 오명섭 오상준 오일순 유근우 유보나 이병우 이효세 임한나 전정일 주대중 최재은 최태훈 최희숙 이크리스 합계:\$ 2,790	성전헌금 김대우 김원모 서영주 유근우 이병우 이효세 임한나 주대중 최재은 최태훈 이크리스 합계 : \$1,140
주일미사헌금 :\$2,374	감사헌금: \$100 (한영분)

◆주일학교 Thanksgiving 행사

- Clash of Cans, 캔 푸드 모으기

Thanksgiving을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1월 한달 동안 기부된 모든 canned food를 LA Food Bank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 배론 청년 일일 피정

- 일시 : 11월 20일 주일, 오후 2시~8시
- 장소 : St. Mary's Catholic Church
(지도 신부님: 김 마티아스 신부님)

◆ 한국학교 TA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한국학교에서 선생님을 도우며,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TA를 모집합니다.

- 자격조건 : SAT 시험을 마친 학생으로 9학년 이상.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이메일 : 103skcecks@gmail.com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제 36기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 강의 : 2016년 11월27일(주일) 낮 1시~5시
28일(월)저녁 6시~10시 중 택일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후 10회실습
- 교육비 : \$200(당일 지불)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CA 90007
- 문의 : 성당사무실 (323) 731-4433

E-MAIL : ignhanddrip@gmail.com

◆ 우편 또는 동영상 강의를 이용한 성경공부

- 과정 : 구약과 신약 입문과정(2년)
- 자격 :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지신 분
- 접수 : 2016 11월~2017년 1월말
-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원
- 원서 교부처 : 바오로의 딸 서원, 성 바오로 서원
<http://uus.pauline.co.kr> 인터넷 다운로드
- 우편성경공부 : uus@pauline.or.kr
- 이지러닝 성경공부 : e-learning@pauline.or.kr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지경수 마태오 11/16(수)오전11시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김정웅 요한 11/12(토)오후6시30분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11/18(금)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주량 요한 11/19(토)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형삼 요셉 11/12(토)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1/8(화)10/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11/18(금)7/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11/15(화)오전11시성당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김희연 루시아 11/19(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최기호 스테파노 11/6(일) 오후5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818)640-9171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11/12(토)오후7시 성당2층 룸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혜나 베네딕다 384-3289	박의혜 세실리아 11/11(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박경주 요아킴 11/11(금) 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박은혜 클라우디아 11/13(일)1시 성당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변복순 베로니카 11/8(화)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 /반장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요안나야 너 어디 있니?”

천주교 신자들의 심성을 빚던 풍자 한 토막이 오랫동안 잊혀 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안내 없이 성당에 처음 나온 한 분이 어색한 미사를 마치고 성당 문을 나서는데 마침 비가 왔다고 합니다. 미리 우산을 준비해 온 신자들이 삼삼오오 빗속으로 사라지고 우산이 없어 난감한 그분 앞에 함께 우산을 쓰자는 분이 계셨답니다. 역시 천주교 신자는 다른 것 같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왈. 자기도 오늘 성당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하셨다는군요. 조용하고 점잖은 종교라는 미명 아래 무심하고 인색한 우리 신자들을 정확히 꼬집은 뒷담화겠지요.

바로 곁에서 비 맞고 계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는 우산 속 세상에 안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산 속의 비 맞지 않는 세상에 갇혀 우산 바깥의 광활한 세상을 모두 포기하는 셈이지요.

성당에 처음 나온 사람! 이 첫 마음에서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전에 다니던 성당 교우들과 헤어지고 낯선 성당으로 전입하던 차에 누가 그러더군요. 이럴 때 쉬어가야 한다고요. 말씀인즉 레지오 활동을 이럴 때 쉬지 않으면 평생 쉴 수가 없다고요. 아무도 내가 레지오 단원인 걸 모르는 곳에서 함께 활동하자고 권유하는 사람도 없으니 숨기에 안성맞춤인 시기라는 얘기였지요. 귀가 달콤한 그 말에 서슴없이 활동을 중단하고 잠시!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30년이었습니다.

선거의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한 순간에 혹 간다’ 참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짝 미사 참례만 하는 일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초상집과 냉담자 들을 찾아 다니는 일도 없으니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듯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남아 돌아가는 시간은 제게 빈손만 남겨주었습니다. 보람도 기쁨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한 순간에 혹 갔습니다. 어느새 활발하게 활동할 나이도 지나버렸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안나야 너 어디 있니?”

수백 번을 부르셨을 텐데 한 번 귀 막으면 들리지 않지요.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첫 영성체를 하던 그 첫 마음에서 한참 멀어져 곁에 비 맞는 예수님을 두고도 모른 척 혼자 우산을 쓰고 가는 매끄러운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성당에 처음 나온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는 평생을 돌고 또 돌았던 셈입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내 신앙 성적표는 에텐동산의 아담처럼 부끄러운 알몸입니다. 그러나 내 생애 처음으로 사랑한 분이 그분이시니 예수님은 아무래도 내 첫사랑이 맞겠지요? 이런 어설픈 고백에도 주님은 안 속는 척, 몇 번이고 또 속아주시겠지요?

◆ 이화은 요안나 / 시인

[길을 찾는 그대에게]

저는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서른 살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계속 신앙을 강요 하시지만 저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라는 생각이 들어 성당에 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저의 자유를 구속하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가요?

☞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어느 시의 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희망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에릭 프롬은 자유에 대해 두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의 단계입니다. 기성세대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무조건 반항하는 청소년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를 부르짖는 반항기의 청소년도 결국 자신의 또래 집단의 구속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성세대의 향락 퇴폐 문화의 노예가 되거나,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에릭 프롬은 두 번째의 자유를 무엇을 향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자유’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로,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을 위해 기꺼이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십니다. 사랑을 통해 바로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의 완성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신앙생활에 대한 강요는 첫 번째 자유의 어려움 없이 두 번째의 참된 자유를 자녀들이 바로 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자유에 지쳐 길에 쓰러지는 나그네의 고통을 각자 겪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 언젠가는 하느님의 집으로 스스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 권순호 신부 / 주례성당 주임

[교리상식]

미사 때 서고, 앉고, 절하는 등 많은 동작들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서 있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는 자세, 곧 준비, 감사, 존경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앉은 것’은 듣고 배우는 자세, ‘무릎 꿇는 것’은 겸손과 통회의 자세, ‘머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는 것’(절)은 예의를 갖추거나 축복을 받는 자세이며, ‘엎드리는 것’(부복)은 완전한 겸손과 간절한 애원을 드러내는 자세입니다. 말과 동작 하나하나가 다 표징이 되어 주님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벌을 받은 우찌야

우찌야는 16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어 52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츠야의 뒤를 이어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우찌야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준 즈카르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주님을 찾는 동안에 하느님께서도 그가 성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찌야 임금에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치러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역대기 하 26,1-6

우찌야는 흙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농업을 발달시켰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탑들을 세우고, 저수 동굴을 많이 판습니다. 그리고 산악 지방과 기름진 땅에는 농부들과 포도밭 일꾼들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우찌야는 예루살렘의 경비를 구축하는 한편 농업과 목축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강력한 군대도 만들어 용사 가문들의 우두머리 수는 모두 이천육백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지휘 아래 놓인 군사들은 얼마나 되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역대기 하 26,7-13

우찌야는 전군에 작은 방패와 창, 투구, 갑옷, 활, 팔뚝들 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 숨겨 좋은 장인들이 고안해 낸 화살과 큰 돌을 쏘는 무기를 만들어 탑과 성 모퉁이마다 배치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공하고 하는 일이 잘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떤 패악한 것을 저지르게 되었고,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역대기 하 26,14-23

우찌야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지만 교만해져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우찌야는 모든 일이 성공을 거두고 주위 사람들의 찬양을 받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교훈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교만에 의한 징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는 평원 지대와 광야에 많은 ()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광야에 탑들을 세우고 ()을 많이 판다. 산악 지방과 기름진 땅에는 농부들과 포도밭 일꾼들을 두었다. 그는 ()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2역대 26,10)

우찌야 임금은 죽는 날까지 ()을 앓았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내쫓긴 몸이었으므로, ()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탐이 왕궁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2역대 26,21)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성인말씀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죽음으로 이끌며 심판하신다. 죽어가는 모습은 저마다 다르다.
- 성 아폴리오 -

머뭇거리다

거리 공연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악기 케이스에 돈을 넣고 싶었지만
빙 둘러선 사람들이 쑥스러워 넣질
못하고
마음만 열두 번 넘게 악기 케이스를
오갔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어떠한 일을 두고
서운하거나 노여워 질 때 기억하겠습니다.
열 걸음 앞에 있는 악기 케이스에 돈을
넣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이영 아네스-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의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철 아오스딩 310-321-8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융자 / 채융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요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 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플러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스 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티노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